



EPIPHANY

CATHOLIC CHURCH

In your neighborhood. In your life.



MASS SCHEDULE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12:00 pm (Lithuanian)

Last Sunday of the Month

Monday - Friday

7:30 am

Holy Days of Obligation

7:30 am & 7:00 pm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Eucharistic Adoration

**Currently suspended.*

Wednesday

5:30 - 6:30 pm

NINE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8, 2021

Rev. Stefan Megyery

Administrator

SACRAMENTS & PARISH SERVICES

Infant Baptisms

Please visit the parish website to register online, or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all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Parish registration, marriage preparation, and instruction are required.

Sick Calls

Please call if any parishioners are in need of the Sacrament of the Sick.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RCIA)

For those who would like to join the Catholic Church.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dult Confirmation

For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by visiting the parish website.

Contact

2712 Dumbarton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202) 965-1610

epiphanygeorgetown@gmail.com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arish office is closed every Monday and Friday.

**MEDITATION
ON TODAY'S READINGS
Nine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Be imitators of God . . . and live in love. (Ephesians 5:1, 2)

On the face of it, today's reading seems simple enough. Just try to love people. But Paul doesn't leave it there. In very practical and pointed terms, he tells us what this kind of love looks like: it's not just a matter of avoiding "fury," or even its milder cousin, "anger." There is no room for "bitterness" or "shouting," either. Not even a hint of "malice"! Instead, the love Paul is calling us to is marked by kindness and compassion—and forgiveness (Ephesians 4:31, 32).

Forgiveness. That's the linchpin. Our ability to show compassion and kindness stands and falls on whether we are able—or at least willing to try—to forgive people who have wronged us. Without forgiveness, our love is conditional: *Of course I love you, but only if you are good to me. The moment you hurt me, all bets are off.*

That's not how Jesus loves us. His love is unconditional; there is never a moment that he doesn't love us. Even when we are mired in a sin that we can't seem to overcome, he is still completely committed to us. But that doesn't mean he is indifferent to our sin. It means that he longs for us to repent so that we can receive his forgiveness and healing. And he asks us to treat one another with the same mercy and love.

This isn't always easy. Sometimes it feels downright impossible. Some sins seem just too hard to forgive. But if anyone knows that, it's Jesus. That's why he is so patient. He promises to love you even if you are struggling to forgive someone. He knows that his love can soften your heart and give you the grace to show mercy.

Paul told the Ephesians to live in the same kind of love that Jesus had when he "handed himself over for us" (5:2). Jesus never gave up on us, even when it meant going to the cross. So never give up on yourself—or anyone else!

"Lord, teach me how to love with your love—the love that forgives."

1 Kings 19:4-8

Psalm 34:2-9

John 6:41-51

The WORD Among Us

MAINTENANCE COLLECTION

The second collection this weekend, August 7-8, will benefit routine maintenance and necessary repairs. Please give generously to support the upkeep and preservation of our beautiful and historic Epiphany Catholic Church.



**EPIPHANY CATHOLIC CHURCH
MEMORIAL GARDEN FUNDRAISER**



Epiphany Catholic Church is selling commemorative, laser-engraved bricks, which will form a **Memorial Garden** in the front yard of the rectory before the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Each 4"x8" brick can accommodate 3 lines of English, Korean, or Lithuanian text, limited to 18 characters per line (including spaces and punctuation). Bricks are only available for purchase on our website. (Go to www.georgetownepiphany.org. The purchase form is located under the "Events & News" tab. Payment is by electronic check – no credit cards.) The prices are 1 brick for \$300 or 2 bricks for \$500. Please consider making a generous donation in memory of someone important in your life. Order yours today!

PARISH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August 7 Vigil	5:00 p.m. Special Intention
Sunday, August 8 NINETEENTH SUNDAY IN ORDINARY TIME	7:30 a.m. Special Intention 9:00 a.m. Korean Mass 10:30 a.m. Special Intention
Monday, August 9 St. Teresa Benedicta of the Cross	7:30 a.m. † Benjamin J. Salavador
Tuesday, August 10 ST. LAWRENCE	7:30 a.m. Special Intention
Wednesday, August 11 St. Clare	7:30 a.m. John Lee Camillo
Thursday, August 12 St. Jane Frances de Chantal	7:30 a.m. Special Intention
Friday, August 13 St. Pontian St. Hippolytus	7:30 a.m. † Bill Knight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24	성체성가	500
봉헌성가	342	마침성가	6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9,4-8		복음 환호송	
화답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제2독서 에페소서 4,30-5,2		복 음 요한 6,41-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6.41).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초중고 주일학교 교리는 9월에 개강합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에 관심있는 봉사자는 Koreanmadonna@hotmail.com (마르티나 수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성인 예비자 교리** 2021-2022년 예비자 교리는 9월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예비자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견진 성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쉬고 있는 신자들을 초대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Memorial Garden** 본당 성모상 주변에 조성할 "기념 정원" 신청 받습니다. 기념 정원 벽돌은 (크기는 4" x 8") 한글이나 영어로 세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줄에 띄어쓰기와 부호를 포함 18자). 벽돌 하나의 가격은 \$300이고, 2개는 \$500입니다. 기념 정원 신청은 본당 웹사이트(www.georgetownepiphany.org)에서만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현금 봉헌** 자동이체 현금 봉헌 방식은 은행과 연결하여 매달 혹은 매주일 자동이체되는 것입니다. 성당 웹사이트(https://www.georgetownepiphany.org/)에 "Online Giving"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라우렌시오] 축일 8월 10일

로마의 일곱 부제 중의 한 분이신 라우렌시오(258년)는 스페인의 우에스카 출신으로써, 교황 식스토 2세의 부제로 봉직하던 충실한 사람이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시대에 교황이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그가 크게 슬퍼하고 애통해 하는 것을 보고 라우렌시오 역시 삼일 안으로 당신의 뒤를 따르리라고 예언하였다. 그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크게 기뻐하며 교회의 소유물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등등 준비작업에 들어 갔다.

박해자들은 라우렌시오를 체포하고 교회의 재산을 황제에게 바치라고 엄명하였다. 이 때 그는 보물을 모으는데 3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을 하고, 로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교회 재산을 나눠 주었다. 이에 격분한 로마 집정관이 석쇠 위에서 구워 죽였다. 라우렌시오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뒤, "자! 한쪽은 다 익었으니 좀 뒤집어주시오." 하였고 잠시 뒤에는 "이제 다 익었으니 잡수시오." 하고 농담을 하며 숨을 거두었다.

시인 프루덴시우스는 그의 죽음과 표양이 로마의 회개를 가져 왔으며, 로마에서 이교 신앙이 종말을 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노라고 노래하였다. 성인의 문장은 석쇠이다.

[교황님의 8월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교회

성령께서 교회에 은총과 힘을 베풀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녀 클라라] 축일 8월 11일

아 시시의 귀족 딸로 태어난 클라라(1194-1253년)는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열 두 살 때에 혼인을 서두르는 부모의 강권을 물리친 이래, 성 프란치스코의 아시시 설교에 감명을 받고, 수도생활을 결심하고 포르지웅콜라에서 그 생활을 시작함으로써 클라라회를 창설하게 되는 위대한 성녀이다.

동생 아네스까지 가담함으로써 부모님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곧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아시시의 가난한 부인회(클라라회)'가 인노첸시오 3세 교황으로부터 인가받기예 이른 것이다.

성녀는 교황으로부터 '가난의 특권'을 허락받고 이를 유지하는데 늘 고심하는데, 너무나 엄격하다는 주장들 때문에 많은 반대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클라라회원들은 높은 수준의 관상가들이며, '복음적 완덕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성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훌륭한 제자이자 동반자였고, 이들의 아름다운 영적 우정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1240년 성녀는 신비한 기도의 힘으로 사라센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등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60세가 되던 1253년 8월 11일에 선종하시고, 2년 후에 시성되는 영광을 얻으셨다. 클라라 성녀는 텔레비전의 수호성인이시고, 문장은 성체 현시대이다.



한 폴란드 사람이 자기에게는 가족과 아이들이 있다고 울부짖자 이를 본 콜베 신부는 자원이 없어 대신 죽겠다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결국 콜베 신부는 다른 아홉 명과 함께 지하 감옥에 갇혀 아사형을 받았다. 다른 동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2주 이상을 물과 음식 없이 생존한 그에게 나치는 결국 독극물을 주사하였고, 그는 1941년 8월 14일 아우슈비츠의 감방에서 세상을 떠났다.

오늘날 콜베 신부가 죽음을 맞이한 감방은 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1948년 그에 대한 시복 절차가 시작되어 마침내 1971년 10월 17일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2년 10월 10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자비의 순교자'(Martyr of Charity)라는 칭호와 함께 그를 시성하였다.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깊었고, 또 성모 마리아에게 매우 특별한 공경을 바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축일 8월 14일

1 894년 1월 7일 폴란드 우지 근처의 즈둔스카볼라(Zdunska Wola)에서 태어난 라이문도 콜베는 1910년 9월 4일 콘벤투알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면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라는 수도명을 택하였다.

중등 교육과 수련을 받고 1911년 9월 5일에 첫 서원을 하였으며, 1912년 12월에 로마로 가서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로마의 프란치스코회 국제 신학원에 머물면서 그레고리안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보나벤투라 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17년, 23세였던 막시밀리아노는 여섯 명의 동료와 함께 신학원장 신부의 허락하에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Militia Immaculatae)라는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은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을 철저히 봉헌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일종의 신심 단체이다.

1914년 11월 1일에 종신 서약을 한 그는 1918년 4월 28일 사제품을 받고 1919년에는 폴란드로 돌아왔다.

귀국 직후 크라쿠프의 프란치스코회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며, 동료 수사들은 물론 대학생들과 군중신부들 안에서 기사회 조직을 만들었다. 1922년부터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라는 잡지를 발행함으로써 매스 미디어를 통한 사도직을 시작하였다. 이 잡지는 초기에 그로드노에서 발행되다가, 1927년에는 '원죄 없으신 성모의 마을'이라는 수도생활 공동체에서 발행하였다.

이 마을은 콜베 신부가 바르샤바(Warszawa)에서 40km 떨어진 방대한 지역에 설립한 공동체이다. 그리고 1930년에는 일본 나가사키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수도원을 세웠다. 그 후 중국, 한국, 인도에도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으나 외부적인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폴란드 내에서 유명해진 성 콜베 신부는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동료 수도자들과 함께 나치에게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혔다가 곧 풀려났다. 이후 그는 가난한 이들과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원죄 없으신 성모의 마을'에 거주토록 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1941년 그가 "자유"라는 기고문을 발표하자, 나치는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2월 17일 그를 체포하여 바르샤바의 파비아크 형무소에 감금했다가 2월 28일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는 아우슈비츠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그는 저명한 가톨릭 신부라는 이유로 더욱 혹독한 매질과 고문과 처벌을 받으면서도, 동료 수감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격려했다.

그러던 중 1941년 7월 말경, 한 수감자가 수용소를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치는 한 명이 탈출하면 그 벌로 열 명을 처형하였다. 나치에 의해 지목된 열 명의 처형자 중